

94년도 각 위원회 위원장 인사(1)



李鍾萬 理事
법제위원회 위원장



李鍾寬 理事
홍보위원회 위원장

격변의 계유년을 보내고 갑술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임원의 일원으로서, 새해 새로운 포부와 각오를 몇자 읊기고자 한다.

지나온 한해는 건축사법 개정관계로 협회가 온통 소송돌이속에서 온갖 시련과 진통을 겪었던 한해였다고 하겠다.

새해에도 지나온 한해동안 풀지 못하였던 많은 난제들이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 있다.

그 가운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발족되었던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던 7개의 과제들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인내와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복잡다변화 되어가는 현사회에서 기능분야별로 법을 세분화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법을 건축법에 흡수, 단일법으로 통합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처사로서 협회는 이에 적극대처하여 건축사법은 현재와 같이 별도의 법으로만 존속하도록 건설부에 전달하여, 현재 개별법으로 개정 작업중에 있다.

현재, 협회의 당면과제로서는 분리감리폐지 및 설계도서신고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절차마련과 건축법, 건축사법개정(안)에 대한 건설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등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명시되어 징계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고, 건설업법 등에도 공사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으나, 건축사법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그동안 설계감리한 행위에 대하여 건축사가 무한 책임을 지고, 평생을 잠정적인 불안상태에서 지내야 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내용을 보완, 반영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추진코자 한다.

이같은 우리 회원의 실질적 현안을 비롯해 협회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본다.

회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한다.

새해를 맞아 협회발전과 회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 홍보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에는 미력하나, 그동안 협회운영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홍보분야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이미지로 평가되고 선택되는 이른바 「이미지 사회」이다. 상품은 상품자체의 실질적 차이가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로서 팔리고, 조직은 조직의 이미지로서, 또 정치인은 각종 대중매체와 개인홍보에 의해 만들어진 대중적 이미지로서 선택된다.

이렇게 볼 때 「이미지 사회」라는 말은 바로 홍보사회를 일컫는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고 개선하고 강화하는 그 모든 것이 홍보라는 수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와 홍보는 이제 모든 조직의 경영전략 그 자체이자 생존을 위한 안보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협회홍보는 이같은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위기홍보에만 급급해 온 인상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협회도 과거와는 달리 홍보의 가치와 효용성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조직의 안보차원에서 중대한 업무로 다루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협회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협회, 자기 직장을 대표한다는 구성원 모두의 「홍보 마인드」의 확산이 전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홍보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홍보목표의 설정, 홍보대상의 선정, 홍보전략(프로그램)개발, 실행 등을 하나하나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코자 한다.

또한, 건축사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업무 역시 고도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협회 사무처에 홍보전문가를 양성, 장단기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화된 홍보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金洸郁 理事
건축설계위원회 위원장

갑술년 새해를 맞아 우리 회원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한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건대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상처뿐인 한해였다.

內憂外患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다.

합심단결해도 막아내기 어려운 敵前에서 안으로 분열하고 책임전가하기 급급한 추한 모습들이 우리들을 슬프게 만들었다.

이것이 물론 묵묵히 건축사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대다수 회원들의 얘기가 아니다.

어둡고 혼돈했던 긴 터널을 뚫고 새해를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아직도 터널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새해는 어김없이 돌아 왔지만 우리들의 새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해의 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들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반성과 다짐이 필요한 때이다.

소집단의 편가르기는 단호히 근절되어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들 스스로 추하게 만든다.

말없는 다수의 회원을 대변하는 협회, 소수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협회,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대화의 장(場)으로서의 협회가 되어야 한다.

끝까지 개방 않겠다고던 쌀이 개방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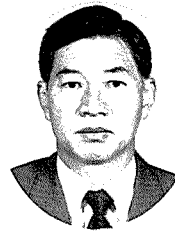
대세의 흐름을 빨리 감지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 협회가 당면한 산적한 법안의 개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쌀개방의 교훈을 다시 새겨볼 때이다.

우리 모두의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한곳으로 결집하여 신뢰와 화합으로 해야겠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후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환경을 창조하는 우리 본연의 일에만 정진할 수 있는 진정한 새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朴容漢
건축설비위원회 위원장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았다.

지난해는 정치적으로 커다란 격동의 해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다.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민주화로 가는 시련의 장이 되어 고통을 온 국민이 분담하였고, 국제적으로는 환경문제, 북한의 핵 문제, UR협상 등 어려웠던 한해를 보냈다. 94년도 건축설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

주지하다시피 건축설계는 의장, 구조, 설비(기계, 전기)등 삼요소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좋은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런 시기에 의장 및 구조의 학문적, 기술적 수준은 거의 국제적 수준에 가깝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건축설비는 양적인 성장을 많이 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아직도 국제 수준에는 미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가 생활공간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로 건축설비위원회에서는 건축설계에서 설비적인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여 훌륭한 건물을 창출하도록 건축을 조인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분과위원회에는 판매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설계 핸드북”을 3월까지 발간하고 에너지 심의용 종합편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건축물에 관계되는 건축설비에서의 문제는 건축설비 계획에 관한 문제와 아파트 가스배관 및 연료 문제 등을 건축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문제를 검토 및 연구 과제로 계획하려고 한다. 아울러 전기 통신 분야는 건축도면, 통신 관계법규 등을 검토하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I·B(Intelligent Building)에 대한 자료를 잡지에 기재하여 건축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건축사와 설비 기술자는 건축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공통의 이해를 갖도록 하여 훌륭한 건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시간이 허락하면 그간 잡지에 기고한 글을 종합하여 책자를 발간하는 계획을 세워 보겠다.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도 같은 도움을 바란다.